

월드컵 인터넷 베팅 위험

'스포츠 토트' 외 모두 불법... 이용엔 도박 처벌

회사원 정승현(33·광주시 서구 능성동)씨는 지난 17일 회사 동료들과 2010 남아공 월드컵 한국-아르헨티나 전 승패와 스코어 내기 게임을 했다. 입사동기 15명이 2만원씩 걸었는데, 대부분 한국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4-1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씨는 가장 많은 예상자가 몰린 2-1 태극전사들의 승리에 걸었다.

내기에 건 돈은 한국-나이지리아 경기(23일)로 그대로 넘어갔다. 정씨는 "경기를 앞두고 긴장도 풀고 대표팀 응원도 할 겸 내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들어가 내기를 해 볼 생각"이라며 "지나친 베팅만 아니라면, 월드컵 기본 내는 데는 제격"이라며 즐거워 했다.

직장과 학교·동호인 모임·온라인 게시판 등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 곳곳에서 '월드컵 내기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지인·동료끼리 소액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른바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나친 월드컵 열기가 '도박성 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인터넷에 이른바 '베팅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합법적인 월드컵 베팅 사이트는 '스포츠 토트' 딱 한 곳뿐이다.

스포츠 토트와 달리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의 경우 베팅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박 행위자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는 "1인당 50만원씩만 결번 10명만 모여도 500만원"이라며 도박성 내기를 조장하는 글도 적지 않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 중인 회사원 이근선(34·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동호회 게시판에 재미삼아 월드컵 내기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월드컵 열기가 높아지면서 고액의 도박성 내기 제안 글까지 올라와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련 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그림같은 풍경 화려한 색채... "마치 베니스에 온 것 같아요"

'글라스 판타지아' 관람객들 탄성

"베니스의 그림 같은 풍경과 화려한 색깔이 고스란히 유리 작품에 담겨 있어요."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의 진수를 선보이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오는 8월22일까지)에 대한 관람객들의 탄성이 이어지고 있다.

원색의 물감을 쏟아부은 듯 환상적인 유리 공예의 색과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생생한 표현력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전시 개막(18일) 후 첫 주말이자 휴일인 19~2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화회관 전시장에는 1천5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이들은 대형 유리 작품과 사실적으로 묘사된 오징어, 게를 소재로 한 작품 등 세계 최고 유리 장인들이 만들어 낸 신비롭고 감각적인 세계를 만끽했다.

전시장에 설치된 피노 시뇨레토(Pino Signoretto)의 대표 작품 20여점과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인 스키타본(Schiavon) 가문의 작품 100여점을 둘러본 관람객들은 탄성을 연발했다.

또 "모든 대형 작품을 이어 붙이지 않고, 쇠로 만든 긴 대롱에 유리 재료를 붙여 입으로 불어 제작했다"는 도슨트의 설명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많은 관람객은 좀 더 많은 작품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한 참 동안 전시장을 떠나지 못했다.

주부 양영애(36)씨는 "작품이 전시장 조명을 받아 다양한 색을 발하는 모습이 환상적이고, 사진 촬영이 자유로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반겼다.

특히 이탈리아 무라노 섬의 대표 유리 작가 카티아(Katia)씨가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600°C가 넘는 강한 불로 녹인 유리 재료를 순식간에 감아지, 꽃, 나비, 발레리나 등 다양각색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장인의 능숙한 손놀림에 눈을 떼지 못했다.

또 피노 시뇨레토와 스키타본 가문의 장인들의 실제 작업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하는 유리 다큐멘터리관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동영상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실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광주방립초등학교 오선숙(39)교사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리 공예를 관람하고, 제작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의 체험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62-511-03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일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이 열린 광주문화회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이탈리아의 국보급 유리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림같은 풍경 화려한 색채...

"마치 베니스에 온 것 같아요"

'글라스 판타지아' 관람객들 탄성

"베니스의 그림 같은 풍경과 화려한 색깔이 고스란히 유리 작품에 담겨 있어요."

이탈리아 전통 유리 공예의 진수를 선보이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오는 8월22일까지)에 대한 관람객들의 탄성이 이어지고 있다.

원색의 물감을 쏟아부은 듯 환상적인 유리 공예의 색과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생생한 표현력은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 전시 개막(18일) 후 첫 주말이자 휴일인 19~20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화회관 전시장에는 1천5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이들은 대형 유리 작품과 사실적으로 묘사된 오징어, 게를 소재로 한 작품 등 세계 최고 유리 장인들이 만들어 낸 신비롭고 감각적인 세계를 만끽했다.

전시장에 설치된 피노 시뇨레토(Pino Signoretto)의 대표 작품 20여점과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인 스키타본(Schiavon) 가문의 작품 100여점을 둘러본 관람객들은 탄성을 연발했다.

또 "모든 대형 작품을 이어 붙이지 않고, 쇠로 만든 긴 대롱에 유리 재료를 붙여 입으로 불어 제작했다"는 도슨트의 설명에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많은 관람객은 좀 더 많은 작품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한 참 동안 전시장을 떠나지 못했다.

주부 양영애(36)씨는 "작품이 전시장 조명을 받아 다양한 색을 발하는 모습이 환상적이고, 사진 촬영이 자유로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반겼다.

특히 이탈리아 무라노 섬의 대

표 유리 작가 카티아(Katia)씨가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600°C가 넘는 강한 불로 녹인 유리 재료를 순식간에 감아지, 꽃, 나비, 발레리나 등 다양각색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장인의 능숙한 손놀림에 눈을 떼지 못했다.

또 피노 시뇨레토와 스키타본 가문의 장인들의 실제 작업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하는 유리 다큐멘터리관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동영상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실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광주방립초등학교 오선숙(39)교사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리 공예를 관람하고, 제작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의 체험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62-511-03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14시 49분 달짐 01시 02분

낮이 가장 긴 날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렀다.

광주	구름조금	20/31℃
목포	구름조금	19/27℃
여수	구름조금	20/26℃
완도	구름조금	19/28℃
구례	구름조금	19/32℃
해남	구름조금	19/29℃
장흥	구름조금	19/29℃
고흥	구름조금	19/30℃
순천	구름조금	20/31℃
영광	구름조금	20/28℃
진도	구름조금	19/29℃
남원	구름조금	17/29℃
목포	구름조금	17/22℃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	0	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	0	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	0	0

바다	중랑	파고	미물	쌀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목포	09:13 02:2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여수	04:09 10: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22:16 14:5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7:28 23: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9/31	21/30	21/30	22/30	22/28	23/28

새 대법관 이상훈 법원행정차장 물망

김영란 대법관 8월 퇴임

8월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을 이을 새 대법관이 누가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10~12기 사이의 법원장이나 고법부장 중에서 새 대법관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10기에서는 이진성(54·부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영한(55·광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물러나는 김 대법관이 첫 여성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기수 차이는 다소 있지만 14기인 조경란(50·목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외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원장과 이 차장은 민·형사·특허 등 여러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능하며 원만한 성품으로 법관을 사이에서 신망이 두둑하다.

11기 중에서는 조병현(55·경북) 부산지법원장, 박삼봉(54·부산) 전 주지법원장, 유승정(55·경북) 창원지법원장, 서기석(57·경남)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고영한(55·광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물러나는 김 대법관이 첫 여성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기수 차이는 다소 있지만 14기인 조경란(50·목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외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도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솔로시리 리조트

엘도라도리조트

시니어스 캐시워크: 5월 31일부터 (최신형 콘서트)

15,000원 (수석) / 10,000원 (일반)

10,000원 (수석) / 5,000원 (일반)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수시모집

사회교육원 개교

2010년 9월 1일부터 2년 과정으로 개교합니다. (2010년 9월 1일 개교)

1. 사회교육원 개교

2. 사회교육원 개교

3. 사회교육원 개교

4. 사회교육원 개교

5. 사회교육원 개교

6. 사회교육원 개교

7. 사회교육원 개교

8. 사회교육원 개교

9. 사회교육원 개교

10. 사회교육원 개교

교수진

1. 김성호 (총장)

2. 김성호 (총장)

3. 김성호 (총장)

4. 김성호 (총장)

5. 김성호 (총장)

6. 김성호 (총장)

7. 김성호 (총장)

8. 김성호 (총장)

9. 김성호 (총장)

10. 김성호 (총장)

사회교육원 개교

2010년 9월 1일부터 2년 과정으로 개교합니다. (2010년 9월 1일 개교)

1. 사회교육원 개교

2. 사회교육원 개교

3. 사회교육원 개교

4. 사회교육원 개교

5. 사회교육원 개교

6. 사회교육원 개교

7. 사회교육원 개교

8. 사회교육원 개교

9. 사회교육원 개교

10. 사회교육원 개교

사회교육원 개교

2010년 9월 1일부터 2년 과정으로 개교합니다. (2010년 9월 1일 개교)

1. 사회교육원 개교

2. 사회교육원 개교

3. 사회교육원 개교

4. 사회교육원 개교

5. 사회교육원 개교

6. 사회교육원 개교

7. 사회교육원 개교

8. 사회교육원 개교

9. 사회교육원 개교

10. 사회교육원 개교